

학령기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과 관련변인들 간의 관계 구조분석*

최 자 은¹⁾

문 수 백²⁾

대구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이 연구의 목적은 학령기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과 관련변인인 부모-자녀 친밀·지지 관계, 교사의 정서적 지지, 또래애착, 아동의 정서조절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여 학령기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을 상향조정할 수 있는 변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연구의 대상은 D시의 초등학교 5, 6학년 남녀 아동 798명 중 질문지에 성실히 응답한 669명이며,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23.0, AMOS 23.0 프로그램을 이용 하였다. 모델부합도는 절대부합도지수인 SRMR, RMSEA와 상대부합도지수인 CFI, TLI를 통해 평가하였고, 유의수준 .05를 기준으로 모수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자녀 친밀·지지 관계, 교사의 정서적 지지, 또래애착, 아동의 정서조절은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직접영향을 미쳤다. 둘째, 부모-자녀 친밀·지지 관계, 교사의 정서적 지지, 아동의 정서조절은 또래애착에 직접영향을 미쳤다. 셋째, 부모-자녀 친밀·지지 관계, 교사의 정서적 지지는 아동의 정서조절에 직접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을 높이기 위하여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교사의 정서적 지지, 또래애착과 아동의 정서조절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주요어 : 주관적 안녕감, 부모-자녀 친밀·지지 관계, 교사의 정서적 지지, 또래애착, 아동의 정서 조절

* 본 논문은 박사논문의 일부이며, 2017년 한국인간발달학회 추계학술대회 포스터발표 논문임.

1) 대구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강사

2) 교신저자 : 대구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E-mail: iqmoon@cu.ac.kr)

I. 서 론

한국은 경제적인 풍요로움에 비해 개인의 행복도나 삶의 만족도는 낮은 편이다. 한국의 학부모들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산업화 시대 속에서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아야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사회적 관념 속에서 성장해 왔고 이러한 강력한 무의식이 자녀에게로 이어져 현대의 학령기 아동들은 극심한 경쟁 구도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특히 학령기 아동은 학업 경쟁에 노출되어 있으며 부모와 교사의 지나친 학업기대, 학업성취, 공부압력 등은 아동의 안녕감을 저해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풍족한 환경이지만 '2010 한국 아동 행복지수'는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였으며(박종일, 박찬웅, 서효정, 염유식, 2010) 이런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고,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13년 한국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한국의 11세, 13세, 15세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60.3점으로 OECD국가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보건복지부, 2014). 이런 상황은 경제적 풍요로움을 넘어서 아동이 느끼는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원인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추측 가능하게 한다. 즉, 물질적 풍요로움이 개인의 안녕감을 가늠하는 유일한 척도가 될 수 없으며, 경제력은 안녕감을 평가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이 처한 여러 가지 환경과 개인 내적인 요인을 포함하여 다 각도로 안녕감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인간의 안녕감은 각자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느끼는가 하는 주관적 판단이 중요하다(Diener, 1984). 주관적 안녕감은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한 질적 수준을 호의적으로 판단하는 정도이며(Veenhoven, 1991),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안녕감이나, 행복감, 만족감으로서 정서적 안정을 나타내주는 성격특성이다(Szalai, 1980). 기질에 의해서건 최근 경험에 의해서건 행복한 사람은 보다 잘 견디고, 선입견이 덜 하며, 인정이 많고, 자기보다 타인에 초점을 두고, 다른 사람을 더 잘 도우며, 함께 있는 것을 더 잘 즐긴다(Myers, 1992). 안녕감은 많은 긍정적인 행동들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그 자체로 바람직한 상태라 할 수 있지만(Myers, 1992),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사람들은 높은 수준의 창의력, 과제 지속성 증가, 멀티태스킹, 체계성, 낙관성, 관련 부정적 정보에의 집중, 장수, 질병에 대한 낮은 취약성, 사회성, 신뢰, 도움행동, 보다 적은 적개심을 가진다(Diener, 2000). 또한 주관적 안녕감은 우울(양선미, 박경, 2011)이나 학교생활적응(강승희, 2010)과도 관련이 있는 등 향후 적응적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주관적 안녕감의 평균 수준은 상당히 안정적인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Diener, 1984) 아동기에 형성된 주관적 안녕감이 성인기 이후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연구대상 대부분이 성인이나 청소년에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아동의 행복한 삶에 대해서는 간과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유슬기, 방희정, 2011). 이는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가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개인의 기질과 성향 관련 변인, 인구사회학적 변인, 환경적 변인 등 다양하다. 정운주(2015)의 아동의 안녕감과 관련된 변인들의 메타분석에서 연구 빈도가 높은 변인은 아동의 개인

변인, 부모변인, 또래변인, 학업 및 학교 변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도 그 관련변인으로 아동 개인의 역량뿐만 아니라 부모와 또래, 학교관련 변인이 주요 변인으로 다루어져야 함을 함의하고 있다. Diener(2001: 권석만, 2008에서 재인용)는 주관적 안녕감을 가장 일관성 있게 잘 예측하는 요인은 인간관계라고 하였으며, 아동이 맺고 있는 부모, 교사, 또래와의 관계는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Newland et al., 20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안녕감의 환경변인으로 아동에게 가장 근접해 있고 중요한 인간관계 대상인 부모, 교사, 또래에 관하여 탐색 한 후 선정 하였다.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첫 번째 환경 변인은 부모-자녀 친밀·지지 관계이다.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에서 아동이 경험하는 친밀감은 삶의 만족도를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변인이며, 이는 물질적 풍요나 건강 및 여가활동보다 더 강력한 예측요인이다(Cummins, 1996). 따라서 아동과 가장 밀접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부모와의 관계의 중요성은 높다고 볼 수 있다. 부모-자녀 친밀·지지 관계는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을 표현하고 친밀한 행동과 언어적 교류가 있으며 정서적 지지가 있는 관계를 말한다(이미경, 김성희, 2011). 부모와의 관계가 친밀하고 부모로부터 지지를 받는 관계일 경우 아동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정도가 높고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경험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주관적 안녕감이 높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두 번째 환경 변인은 교사의 정서적 지지이다. 아동은 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스트레

스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개인을 정서적, 정신적으로 보호하는 방패나 완충역할을 하면서 어떤 위기나 변화가 있을 때 도와주는 것이 지지이다. 아동의 사회적 환경은 성인과 달리 학교에 국한되어 있고 비교적 제한된 관계망을 가지므로 아동의 삶에 있어 교사는 결코 무시하지 못할 중요한 사회적 지지원이다. 이정미와 이양희(2007)는 사회적 지지가 물질적 지지, 정보적 지지, 정서적 지지 등으로 분류되는 것을 고려할 때, 누구로부터 지지를 받느냐가 아니라 어떠한 성격의 지지를 받느냐에 따라 아동의 안녕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아동이 교사로부터 받는 물질적 지지, 정보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서적 지지 중 어떤 성격의 지지를 받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성공에 있어 의미 있는 타인으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연구결과(김의철, 박영신, 박금주, 1998), 그리고 초등학생이 교사에게 가장 바라는 지지의 형태가 정보적 지지, 행동적 지지도 아닌 정서적 지지이며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요구가 더 커지고 있다(박은성, 2010)는 연구결과들은 교사 지지 중에 정서적 지지가 의미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세 번째 환경 변인은 또래애착이다. 또래애착이란 또래와 형성하는 깊은 애착관계인데,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를 비롯한 주 양육자에게 애착을 형성 하다가 학령기 아동기, 특히 초기 청소년기에 이르게 되면서 그 동안 갖고 있었던 부모와의 애착에서 분리 독립하여 또래와 애착을 형성하게 된다(Ainsworth, 1989). 특히 초등 고학년은 또래와의 친밀감의 욕구

가 높아서 동성과의 단짝친구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고 그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기(백화정, 1988)이며, 친구와 더 넓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심리적 고통감을 덜 느끼고 더 높은 긍정적 정서를 유지한다(Cohen & Wills, 1985). 또한 또래애착이 아동의 우울, 불안 등 부정적 측면과의 관계있다는 연구들(문은식, 2014; 민하영, 2012)은 또래애착이 학령기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있음을 함의하고 있다. 주관적 안녕감은 개인이 처한 사회·문화적인 구조나 선천적으로 타고 난 개인의 신체적·지적 자원 등이 개인의 안녕감에 작용하기 때문에(정혜영, 이경화, 2008), 아동을 둘러싼 환경 뿐 아니라 개인 내적 특질 또한 함께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개인변인은 정서조절이다.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수많은 상황마다 인식되는 정서들이 있다. 이러한 정서들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 똑같은 상황이라도 다르게 처리될 수 있으며 처리된 정서들은 개인의 생활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인간이 자신의 정서를 적절히 관리하고 통제할 때 자신의 삶에 있어서 적응적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이다(Goleman, 1995). 또한 기분과 감정 조절에 대한 연구가 인간이 유쾌한 정서 상태를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정서는 제거하려고 한다는 심리학적 가정에서 출발하였다(곽윤정, 1997)는 점은 정서조절이 쾌락주의에 근간한 주관적 안녕감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해준다.

다음은 독립변인끼리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부모-자녀 친밀·지지 관계는 또래애착 그

리고 아동의 정서조절과 관계가 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아동이 최초로 접하게 되는 인간관계이다. 아동은 부모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부모-자녀간의 관계를 형성하고, 그 과정 안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기술들을 익히게 된다. 부모의 애착이 학령기 아동의 또래애착에 영향을 미치며(민하영, 2012), 부모 양육을 통해 아동의 여러 가지 정서적, 행동적 패턴들이 발달하게 되고 이는 아동이 대하는 또래와 같은 다른 대인관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가정환경은 아동의 정서발달에 중요한 환경적 요인이다(Goleman, 1995). 정서를 조절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고 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을 인식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본 후, 실제적인 조절과 통제를 하게 되는데, 이 때 부모는 자녀에게 적합한 조절전략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문용린, 2011). 또한 정서지능이 일차적으로 형성되는 기반이 가정임을 고려하면(이민영, 김광웅, 조유진, 2006),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원만한 가정의 아동이 정서적인 기술도 정상적으로 발달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교사의 정서적 지지는 또래애착 그리고 아동의 정서조절과 관계가 있다. 교사의 정서적 지지와 또래애착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드문 편이지만 교사의 지지가 아동의 관계 형성과 타인을 배려하고 갈등을 관리하는 대인관계 능력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으며(이진주, 김정민, 문대근, 이종각, 문수백, 2012), 정서적 지지는 또래에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온정성’에 있어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때(정문경, 2013), 아동은 교사로부터 정서적으로 지지 받은 신뢰와 애

정을 또래에게 표현함으로써 교사의 정서적 지지가 또래애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교사의 정서지능이 아동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연구(양연정, 2013)에서 교사의 감정이입과 정서조절이 아동의 정서지능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감정이입 능력은 타인의 감정을 읽어내고 타인의 감정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능력이고 정서조절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 모두를 조절하는 능력(문용린, 1996)이므로 교사가 아동의 감정을 잘 읽어내고 공감해 주며 정서를 조절하는 정서적 역량이 아동의 정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독립변인간의 마지막 관계는 정서조절과 또래애착이다. Calkins(1994)는 정서적 각성을 조정하는 과정과 책략인 정서조절을 통해 효과적인 대인관계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아동이 또래와 생활하고 상호작용 하는 이 때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자신과 타인의 욕구 사이에서 적절하게 균형을 맞춘다면 그 아동은 사회적으로 유능하다고 할 수 있다(Purallaz & Shepard, 1992).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본 연구의 변인인 부모-자녀 간의 친밀·지지 관계, 교사의 정서적 지지, 또래애착, 아동의 정서조절, 주관적 안녕감은 각각의 변인끼리 그 상관관계가 유의미하거나 예측 가능하며, 나아가 직접적인 영향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변인끼리의 상관관계나 예측유무의 결과를 넘어서 환경 변인과 개인 변인, 그리고 주관적 안녕감이라는 종속변인을 하나의 구조모델로 선정하여 그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통합된 시각을 갖고자 하였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은 인과관계 검증을 했더라도 측정오차를 통제하지 않아 신뢰도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표집오차와 측정오차를 모두 고려한 후 부모, 교사, 또래, 그리고 주관적 안녕감과의 각각의 인과관계를 밝히고, 주관적 안녕감을 중심으로 부모, 교사 또래와의 연결된 구조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변인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을 비롯하여 아동의 정서조절, 또래애착과 같은 아동의 긍정적 발달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으며 연구모델은 그림 1과 같다.

<연구문제 1> 부모-자녀 친밀·지지 관계, 교사의 정서적 지지, 또래애착, 아동의 정서조절은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부모-자녀 친밀·지지 관계, 교사의 정서적 지지, 아동의 정서조절은 또래애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부모-자녀 친밀·지지 관계, 교사의 정서적 지지는 아동의 정서조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통계적 모델의 추정 모수치의 수를 고려하여 1:20 비율에 따라(문수백,

2009; Kline, 2011) 표집된 D시에 소재하는 2개의 초등학교 5, 6학년에 재학 중인 학령기 아동 669명이다. 학령기 아동 중 5, 6학년을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이 시기는 발달단계상 청소년 전기에 해당되는 시기로 인지발달로 인한 논리적이고 추상적인 사고가 가능해져 자신과 환경에 대한 평가가 명료해지고 객관적인 자아지각을 하여 자기의 정서와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연령(Montemayor & Eisen, 1977)이기 때문이다.

2. 측정도구

주관적 안녕감

주관적 안녕감 척도는 삶의 만족도 5문항과 정서적 안녕감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삶의 만족도 척도는 Diener 등(1985)의 SWLS(Satisfaction With Life Scale)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정서적 안녕감 척도는 Waton 등(1988)의 PANAS(Positive Affectivity and Negative Affectivity Schedule)를 번역하고, 제시된 형용사 아래에 해당 형용사가 포함된 문장을 예를 들어 표기함으로써 학령기 아동의 이해를 도왔다. 형용사의 의미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기준으로 하였다. 하위요인별 문항은 '나의 생활 환경과 조건들은 아주 좋다.', '나는 나의 생활에 만족한다.' 등 자신의 삶에 대해 행복하고 만족하는 정도와, '흥분된(나는 요즘 기분이 흥분되어 있다.), '과민한(나는 요즘 나의 감정이 지나치게 예민한 것 같다.) 등 최근에 느끼는 감정과 기분에 관련된 긍정적, 부정적 감정을 측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응답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항상 그렇다(5점)까지의 Likert식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잠재변인인 주관적 안녕감의 구성개념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는 Raykov(2001)가 제안한 CFA 기반 신뢰도 추정방법으로 추정한 결과 .77로 나타났다. 그리고 하위요인별 Cronbach' α 계수를 추정한 결과 삶의 만족도는 .84, 정서적 안녕감은 .79로 나타났다.

부모-자녀 친밀·지지 관계

부모-자녀 친밀·지지 관계는 부 친밀·지지 관계 10문항과 모 친밀·지지 관계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미경과 김성희(2011)의 '초등학생 부모-자녀 관계 척도 개발'의 하위요인 중 친밀·지지 관계 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위요인별 문항은 '아버지(어머니)는 나와 대화를 자주한다.' '내가 힘들 때 아버지(어머니)는 나를 격려 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신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응답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항상 그렇다(5점)까지의 Likert식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 친밀·지지 관계가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잠재변인인 부모-자녀 친밀·지지 관계의 구성개념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는 Raykov(2001)가 제안한 CFA 기반 신뢰도 추정방법으로 추정한 결과 .87로 나타났다. 그리고 하위요인별 Cronbach' α 계수를 추정한 결과 부 친밀·지지 관계와 모 친밀·지지 관계는 각각 .93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정서적 지지

교사의 정서적 지지는 단일요인으로 구성된 척도로서 문항 꾸러미화 방법(item parceling

method)을 통해 지표변수들을 구성하였으며 총 7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박지원(1985)이 한국형 사회적지지 척도개발을 위해 연구한 ‘사회적 지지 척도개발을 위한 일 연구’에서 교사의 정서적 지지 부분을 본 연구자가 학령기 아동이 이해하기 쉽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은 ‘나는 어려운 고민이 생기면 선생님에게 이야기 한다.’ ‘선생님은 항상 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걱정해 준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응답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항상 그렇다(5점)까지의 Likert식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느끼는 교사의 정서적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잠재변인인 교사의 정서적 지지의 구성개념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는 Raykov(2001)가 제안한 CFA 기반 신뢰도 추정방법으로 추정한 결과 .91로 나타났다. 그리고 하위요인별 Cronbach's α 계수를 추정한 결과 지지1은 .84, 지지2는 .89로 나타났다.

또래애착

또래애착은 신뢰감 9문항, 의사소통 9문항, 소외감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Gullone과 Robinson(2005)이 개정한 IPPA-R을 사용하였다. 신뢰감 문항은 ‘내 친구들은 내가 어떤 것에 화가 나 있을 때 이를 알아차린다.’, ‘내 친구들은 나를 이해 해 준다.’ 의사소통 문항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내 친구들은 내 의견을 잘 들어준다.’, ‘내 친구들은 정말 이야기에 편한 친구들이다.’ 소외감 문항은 ‘나는 지금 친구들 말고 다른 친구들이 있으면 좋겠다.’, ‘내 친구들은 나의 걱정거리를 알지 못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응답방

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항상 그렇다(5점)까지의 Likert식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애착이 안정적으로 잘 되어있음을 의미한다. 잠재변인인 또래애착의 구성개념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는 Raykov(2001)가 제안한 CFA 기반 신뢰도 추정방법으로 추정한 결과 .89로 나타났다. 그리고 하위요인별 Cronbach's α 계수를 추정한 결과 신뢰도는 신뢰감 .90, 의사소통은 .89, 소외감은 .72로 나타났다.

아동의 정서조절

아동의 정서조절은 자기조절 8문항과 타인조절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용린(1996)이 개발한 ‘한국학생들의 정서지능 측정도구’에 기초한 곽윤정(1997)의 ‘정서지능의 발달 경향성과 구인타당성에 관한 연구’의 하위요인 중 정서조절 부분을 사용하였다. 자기조절 문항은 ‘나는 기분 나쁜 일은 빨리 잊으려고 애 쓰는 편이다.’ ‘나는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실망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타인조절 문항은 ‘나는 친구의 기분이 나빠 보일 때는 조심스럽게 행동한다.’ ‘나는 친구가 슬퍼 보일 때는 친구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노력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응답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항상 그렇다(5점)까지의 Likert식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정서조절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잠재변인인 정서조절의 구성개념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는 Raykov(2001)가 제안한 CFA 기반 신뢰도 추정방법으로 추정한 결과 .80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하위요인별 Cronbach's α 계수를

추정한 결과 자기조절은 .84, 타인조절은 .81로 나타났다.

3. 통계적 모델 및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생명윤리위원회(IRB)를 통해 연구과정 및 질문지 심의를 마친 후 (문서번호 CUIRB-2014-0034),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교사와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영향이 가장 잘 나타날 수 있는 학기말에 실시하였다. 그림 1의 연구모형을 기초로 그림 2와 같이 5개의 측정모델과 1개의 구조모델로 이루어진 통계모델을 설정하였다. 주관적 안녕감을 측정하기 위해 삶의 만족도와 정서적 안녕감을 지표변수로 선정하였고 부모-자녀 친밀·지지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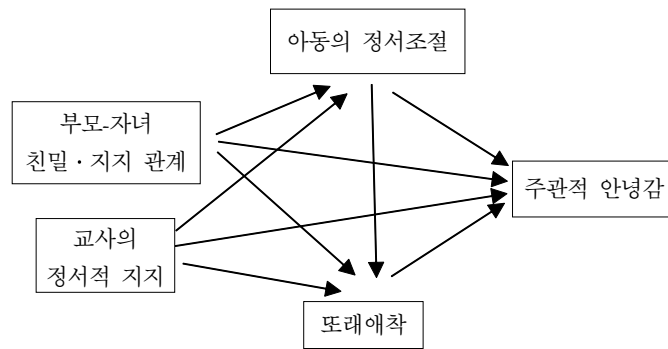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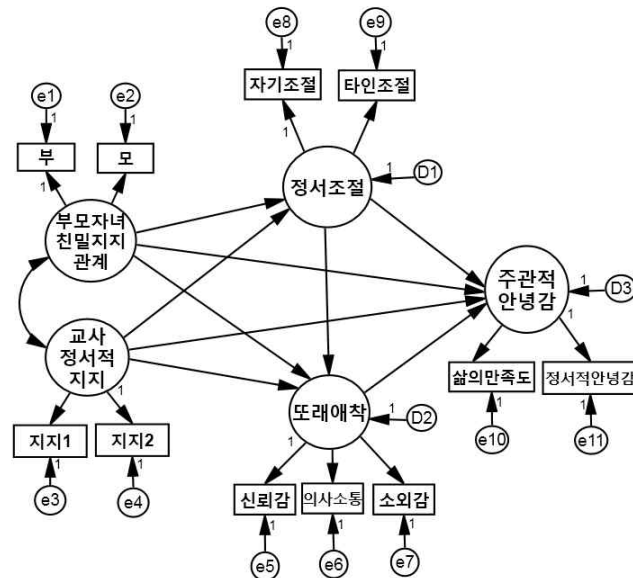


그림 2. 통계적 모델

친밀·지지, 모 친밀·지지를 지표변수로 선정하였다. 교사의 정서적 지지는 지지1, 지지2로, 또래애착은 신뢰감, 의사소통, 소외감을 지표변수를 선정하였다. 아동의 정서조절을 측정하기 위해 자기조절, 타인조절을 지표변수로 선정하였다. 통계적 모델은 측정모델 확인단계와 구조회귀모델 검증단계의 2단계 절차(문수백, 2009; Kline, 2011)에 따라 먼저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모델의 적합도 평가와 함께 측정모델의 수렴적 타당도와 변별적 타당도를 확인하고 구조회귀모델의 적합도와 모수치를 추정하였다. 측정모델과 구조회

귀모델의 적합도는 χ^2 , NC, RMSEA, TLI, CFI, SRMR을 통해 평가하였으며 유의수준 .05에서 모수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간접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phantom 변인을 이용한 간접효과 추정모델을 설정한 다음 AMOS 23.0의 bootstrapping 절차를 이용하여 간접효과를 추정하고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표 1. 측정변인 간의 상호상관행렬 및 기술 통계치 (N = 669)

측정변인	부	모	지지 1	지지 2	신뢰감	의사 소통	소외감	자기 조절	타인 조절	삶의 만족도	정서적 안녕감
부	1.00										
모	.78*	1.00									
지지1	.30*	.31*	1.00								
지지2	.30*	.30*	.84*	1.00							
신뢰감	.42*	.38*	.35*	.38*	1.00						
의사소통	.41*	.36*	.36*	.39*	.91*	1.00					
소외감	.26*	.22*	.16*	.18*	.50*	.46*	1.00				
자기조절	.34*	.37*	.30*	.31*	.38*	.41*	.24*	1.00			
타인조절	.36*	.36*	.38*	.37*	.48*	.52*	.20*	.65*	1.00		
삶의만족도	.44*	.46*	.38*	.34*	.44*	.43*	.33*	.45*	.39*	1.00	
정서적안녕감	.21*	.23*	.28*	.25*	.26*	.23*	.32*	.25*	.27*	.56*	1.00
사 레 수	669	669	669	669	669	669	669	669	669	669	669
평 균	39.57	41.45	10.34	14.70	35.54	35.56	16.21	28.05	31.69	19.16	56.81
표준편차	8.39	7.90	2.87	3.54	6.31	6.39	4.89	4.80	4.90	3.74	9.80
왜 도	-.96	-1.40	-.33	-.47	-.52	-.48	.28	-.52	-.33	-.47	.12
첨 도	.73	2.54	-.15	.18	.12	-.05	-.33	.26	.22	.07	.88

* $p < .05$.

1. 측정변인 간의 상호상관행렬 및 기술 통계치

본 연구의 측정변인 간의 상호상관행렬과 각 측정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및 왜도와 첨도는 표 1과 같다.

2. 측정모델의 부합도 검증 및 모수치 추정

표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측정모델의 부합도 지수가 RMSEA를 포함하여 모든 지수가 부

합도 기준에 양호하게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 결과 그림 3과 같이 잠재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는 .37~.58사이로 나타나 측정모델의 변별타당도를 만족시켰다. 또한 각각의 잠재변인에 대한 지표변인의 요인부하량은 .51~.98사이로 나타나 수렴적 타당도를 만족시켰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통계적 모델에서 잠재변인이 설정된 지표변수들을 통해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되었음을 말해준다.

표 2. 측정모델의 부합도지수

모델	NPAR	DF	CMIIN	NC	TLI	CFI	SRMR	RMSEA(.07)	
								LO90	HI90
측정모델	32	34	133.08	3.91	.96	.98	.03	.05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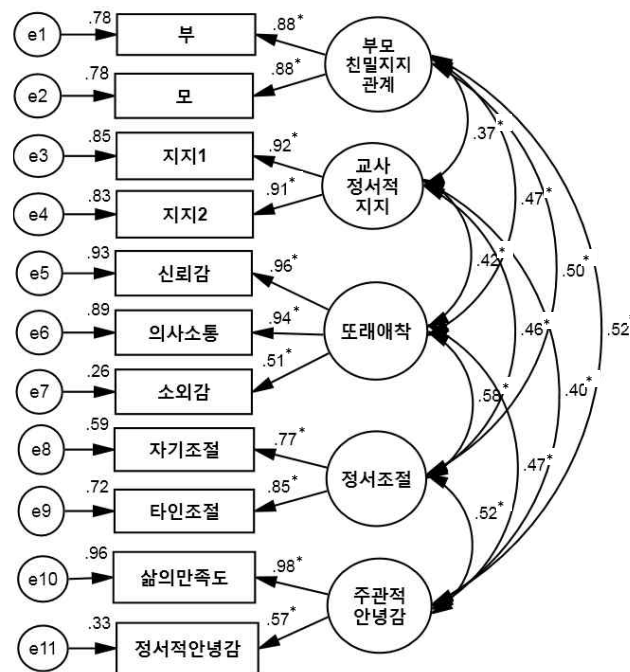


그림 3. 측정모델의 모수치 추정 결과

* $p < .05$.

3. 구조회귀모델의 부합도 검증 및 모수치 추정

구조회귀모델의 부합도를 검증한 결과 표 3과 같이 모든 부합도 지수가 평가 기준을 양호하게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구조회귀모델의 모수치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는 그림 4와 같으며 모수치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조회귀모델의 변인들 간의 회귀계수 통계적 유의성 검증 결과 첫째, 부모-자녀 친밀·지지 관계($\beta = .29$, $p < .05$), 교사의 정서적 지지($\beta = .12$, $p < .05$),

또래애착($\beta = .15$, $p < .05$), 아동의 정서조절($\beta = .23$, $p < .05$)은 주관적 안녕감에 직접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자녀 친밀·지지 관계, 교사의 정서적 지지, 또래애착, 아동의 정서조절이 높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부모-자녀 친밀·지지 관계($\beta = .21$, $p < .05$), 교사의 정서적 지지($\beta = .15$, $p < .05$), 아동의 정서조절($\beta = .41$, $p < .05$)은 또래애착에 직접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자녀 친밀·지지 관계, 교사의 정서적 지지, 아동의 정서조절이 높을수록 또래애착도 높다

표 3. 구조회귀모델의 부합도 지수

모델	NPAR	DF	CMIN	NC	TLI	CFI	SRMR	RMSEA(.07)	
								LO90	HI90
구조회귀	32	34	133.08	3.91	.96	.97	.03	.05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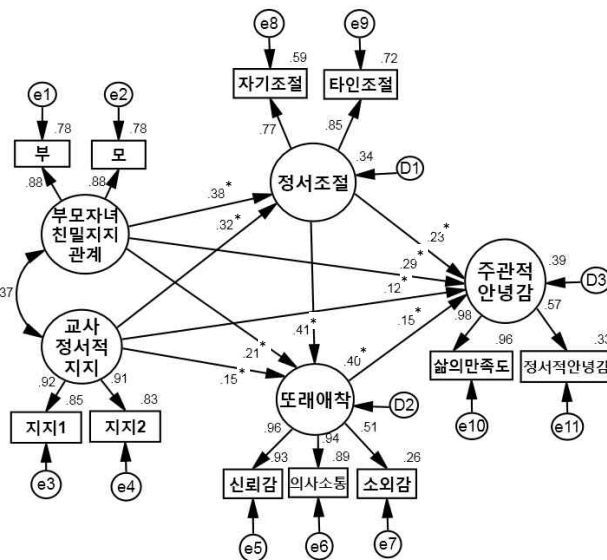


그림 4. 구조회귀모델의 모수치 추정 결과

* $p < .05$.

표 4. 구조회귀모델의 모수치 추정 및 통계적 유의성 검증 결과

변인	비표준화 계수	S.E	C.R	<i>p</i>	표준화 계수
부모-자녀 친밀·지지 관계 → 주관적 안녕감	.22	.04	5.69*	.001	.29
교사의 정서적지지 → 주관적 안녕감	.22	.07	2.99*	.003	.12
또래애착 → 주관적 안녕감	.13	.04	3.13*	.002	.15
아동의 정서조절 → 주관적 안녕감	.35	.09	4.07*	.001	.23
부모-자녀 친밀·지지 관계 → 또래애착	.17	.04	4.85*	.001	.21
교사의 정서적 지지 → 또래애착	.29	.08	3.74*	.001	.15
아동의 정서조절 → 또래애착	.67	.08	8.15*	.001	.41
부모-자녀 친밀·지지 관계 → 아동의정서조절	.19	.03	7.97*	.001	.38
교사의 정서적 지지 → 아동의정서조절	.37	.02	7.12*	.001	.32

* $p < .05$.

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부모-자녀 친밀·지지 관계($\beta = .38, p < .05$), 교사의 정서적 지지($\beta = .32, p < .05$)는 아동의 정서조절에 직접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자녀 친밀·지지 관계와 교사의 정서적 지지가 높을수록 아동의 정서조절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4. 구조회귀모델의 간접효과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각 변인간의 직접효과 여부이다. 그러나 간접효과가 연구자의 직접적인 관심현상은 아니더라도 변인들 간의 직접효과의 범위를 넘어서 새로운 현상이기 때문에 직접효과를 논의하는 과정 속에 간접적인 효과가 존재할 수 있는 논리적 추론을 제시하면서 그 의의와 가능성을 논의 할 수 있으므로(문수백, 2009), 본 연구에서도 부수적

으로 간접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림 5와 같이 phantom 변수를 이용한 간접효과모델을 설정한 다음 AMOS 24.0의 bootstrapping 절차를 이용하여 간접효과를 추정한 다음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였고,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간접효과에 대한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자녀 친밀·지지 관계는 아동의 정서조절을 통해 주관적 안녕감에 간접효과($B = .07, p < .05$)를 그리고 또래애착을 통해서도 주관적 안녕감에 간접효과($B = .02, p < .05$)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의 정서조절과 또래애착은 부모-자녀 친밀·지지 관계와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 사이를 매개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교사의 정서적 지지는 아동의 정서조절을 통해 주관적 안녕감에 간접효과($B = .13, p < .05$)를 그리고 또래애착을 통해서도 주관적 안녕감에 간접효과(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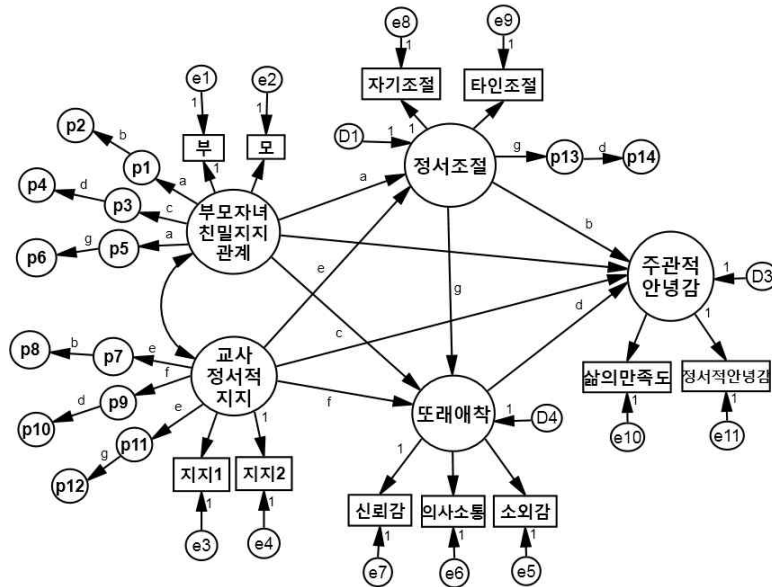


그림 5. phantom 변인을 이용한 간접효과 모델

표 5. 구조회귀모델의 간접효과 추정 및 통계적 유의성 검증 결과

변 인	간접효과계수		
	B	S.E	p
부모-자녀 친밀·지지 관계 → 아동의 정서조절 → 주관적 안녕감	.07*	.02	.001
부모-자녀 친밀·지지 관계 → 또래애착 → 주관적 안녕감	.02*	.01	.001
교사의 정서적 지지 → 아동의 정서조절 → 주관적 안녕감	.13*	.04	.001
교사의 정서적 지지 → 또래애착 → 주관적 안녕감	.04*	.08	.001
아동의 정서조절 → 또래애착 → 주관적 안녕감	.05*	.03	.000
부모-자녀 친밀·지지 관계 → 아동의 정서조절 → 또래애착	.13*	.02	.001
교사의 정서적 지지 → 아동의 정서조절 → 또래애착	.25*	.05	.001

* $p < .05$.

= .04, $p < .05$)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의 정서조절과 또래애착은 교사의 정서적 지지와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 사이를 매개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아동의 정서조절은 또래애착을 통해 주관적 안녕감에 간접

효과($B = .05$, $p < .05$)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또래애착이 아동의 정서조절과 주관적 안녕감 사이를 매개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부모-자녀 친밀·지지 관계는 아동의 정서조절을 통해 또래애착에 간접효과($B = .13$, $p < .05$)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05)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의 정서조절이 부모-자녀 친밀·지지 관계와 또래애착 사이를 매개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정서적 지지는 아동의 정서조절을 통해 또래애착에 간접효과($B = .25, p < .05$)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의 정서조절이 교사의 정서적 지지와 또래애착 사이를 매개한다고 볼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들이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상태, 즉 주관적 안녕감과 관련된 인과적 변인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구조방정식모델링을 통해 가설적 연구모형이 실제 자료와 일치하는지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자녀 친밀·지지 관계, 교사의 정서적 지지, 또래애착, 아동의 정서조절은 주관적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주관적 안녕감이 객관적인 환경여건에 영향을 받는다는 상향이론과 개인의 성격특질에 영향을 받는다는 하향이론(Compton, 2007)을 바탕으로 상향적인 영향과 하향적인 영향을 동시에 받는 것이라는 권석만(2008)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부모와 교사, 또래라는 환경에서 부모와는 애정표현을 자주 하고 친밀한 행동을 하며 긍정적인 언어교류와 정서적 지지를 받고, 교사로부터는 정서적 지지 즉, 교사의 사랑, 이해, 격려, 신뢰, 관심, 공감적 경청을 받고 또래와는 서로 존경하고 상호이

해하며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이루고 분노와 소외감을 적게 느끼는 것은 아동이 자신의 환경을 통해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긍정적 경험의 합계를 높인다. 이렇게 높아진 긍정경험의 합계가 주관적 안녕감을 높인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상향적 영향에 해당한다. 또한 행복도가 가장 높은 상위 10% 대학생의 행복도의 가장 큰 원인이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인간관계였는데(Diener & Seligman, 2002), 본 연구를 통해 대학생뿐만 아니라 학령기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 또한 부모, 교사, 또래와의 긍정적인 인간적 관계가 바탕이 될 때 주관적 안녕감이 높아질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은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아동의 개인 특질인 아동의 정서조절 또한 주관적 안녕감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 이는 아동이 자신의 정서를 의식적으로 관리하고 조절함으로써 자신의 주관적 안녕감을 높인다는 것이며, 주관적 안녕감이 유전적 기질, 성격 특질, 정서 성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하향적 영향에 해당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주관적 안녕감은 상·하향적 영향을 모두 받는다는 행복에 대한 통합적 설명모형을 제시한 권석만(2008)의 주장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모형에서 주관적 안녕감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을 역으로 추적하면 첫 시발점은 부모-자녀 친밀·지지 관계와 교사의 정서적 지지이다. 이는 아동의 높은 주관적 안녕감을 위해 무엇보다 성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아동은 성인에게 의지하고 성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며, 아동이 정서를 조절하기 힘들고 또래애착에 문제가 있거나 주관적 안녕감이 낮을 때 가장 먼저 도움을 줄 수 있는

성인이 부모와 교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와 친밀하고 지지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교사는 아동에게 정서적으로 지지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긍정적인 인간관계와 행복은 상호작용적인 것이어서 행복감을 느낄 때 인간관계가 증진 될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 경험을 통해서도 행복감이 증진된다(권석만, 2008). 아동이 자신을 둘러싼 인적 환경과의 긍정적 관계를 통해 주관적 안녕감과 선(善) 순환될 수 있도록 부모와 교사를 비롯한 성인들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변인 중 영향력이 가장 큰 변인이 부모-자녀 친밀·지지 관계임을 고려하면 부모는 자녀와의 친밀하고 지지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 애정표현 및 친밀한 행동, 긍정적인 언어적 교류와 정서적 지지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한다. 또한 부모-자녀 관계를 긍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제적 해결책을 제공하는 부모교육의 시행이 필요할 것이다. 교사에게는 교육과 연수를 통해 담당 아동에 대한 정서적 지지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고, 구체적 실천방안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아니었지만 모델의 구조에서 자연스러운 결과로 부모-자녀 친밀·지지 관계, 교사의 정서적 지지가 각각 아동의 정서조절과 또래애착을 통하여 주관적 안녕감에 간접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자기를 조절하는 능력이 부모나 교사의 지지와 주관적 안녕감 사이를 매개하고 있음을 밝힌 연구(정혜영, 이경화, 2008) 결과를 고려하면 아동의 정서조절과 또래애착이 부모-자녀 친밀·지지 관계 그리고 교사의 정서적 지지

와 주관적 안녕감 사이를 매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서조절이 또래애착을 통해 주관적 안녕감에 간접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됨으로써 또래애착이 아동의 정서조절과 주관적 안녕감 사이를 매개하는 매개변인임을 알 수 있다.

둘째, 부모-자녀 친밀·지지 관계, 교사의 정서적 지지, 아동의 정서조절은 또래애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아동이 태어나면서 최초로 접하게 되는 인간관계이며, 부모와의 사이에서 형성된 애착은 그 이후의 사회적 관계형성의 기초가 된다(Bowlby, 1975: 민하영, 이영미, 2012에서 재인용). 아동이 성장하면서 부모와의 반복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부모의 돌봄에 대한 기대가 궁극적으로 자신과 타인에 대한 내적표상 즉, 내적작동모델의 원천이 되어 타인과 정서적 유대를 맺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또래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이 또래애착을 형성하게 하는데(이미숙, 민하영, 2013), 부모와의 관계가 친밀하고 지지받는 관계라고 지각하는 아동은 그 관계 속에서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상호교류방식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부모와의 교류방식이 언어적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부모-자녀 친밀·지지 관계의 경험들이 또래끼리의 의사소통에 모델링이 되어 또래들과 긍정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신뢰로운 관계를 형성하며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궁극적으로 또래애착 형성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아동들이 적극적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도록 하는 기초적 역할을 하는 것이 사회적 지지(최미숙, 2014)이므로 교사가 아동

에게 정서적인 지지를 보내고 아동이 교사에 대해 언제나 나를 지지해 줄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 지지를 바탕으로 아동이 또래와의 애착관계를 긍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다. 또한 또래애착이 주로 학교교실 친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짐을 고려하면 교실 상황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상호작용하는 성인인 교사의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본 연구에서 아동의 정서조절은 또래애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서조절이 발달한다는 것은 자기 정서조절과 타인 정서조절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한다는 것이며, 결국 자신의 감정 상태를 인식하고 조절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생각하고 느끼는 바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이를 조절할 줄 하는 능력이 발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능력의 발달은 아동이 자신과 타인의 긍정정서를 높이고, 자신의 정서를 조절함으로써 타인을 자신이 가진 가치 있는 목표에 융화되도록 하는 힘을 발휘한다(Salovey & Mayer, 1990). 아동이 또래와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애착을 형성할 때,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타인의 감정 또한 공감해 주고 상대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또래와의 접근을 용이하게 해 주고 궁극적으로 또래애착 형성에 큰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아니었지만 모델의 구조에서 자연스러운 결과로 부모-자녀 친밀·지지 관계, 교사의 정서적 지지가 아동의 정서조절을 통하여 또래애착에 간접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정서조절이 모애착과 또래애착을 매개하고 있고(장미희, 이지연, 2011), 교사의 지지를 받을수록 학교 적응력이 높아진다는(유봉애, 옥경희, 2013) 연

구결과를 고려하면 아동의 정서조절이 부모-자녀 친밀·지지 관계 그리고 교사의 정서적 지지와 또래애착 사이를 매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부모-자녀 친밀·지지 관계, 교사의 정서적 지지가 아동의 정서조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학령기 아동이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에 부모, 교사와 같은 성인의 역량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와의 사이에서 애정표현과 친밀한 행동, 언어적 교류와 정서적 지지를 기반으로 한 긍정적 관계를 형성해야 하며 이렇게 형성된 긍정적 관계는 아동의 정서조절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이다. Buber(1958: 이정표, 2011에서 재인용)는 관계는 인간이 맺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관계 안에 있다고 하였는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이미 맺어져 있는 근원적 관계이고, 교사와 아동의 관계는 제도적·임의적으로 맺는 과정을 통해 생성된다. 교사는 부모와 자녀사이의 원(原)관계에서 기원하는 아동의 사적 세계를 이해함과 동시에 사회가 강조하는 공적 세계와의 교량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교사는 아동의 충동이 바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 이 과정에서 교사는 아동의 정신적 미성숙함을 인정하고 포용력을 가지고 안내해야 한다(이정표, 2011). 결과적으로 정서조절의 정상화를 향해 발달하고 있는 아동에게 근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부모와 교사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직접효과를 검

증하기 위해 부모-자녀 친밀·지지 관계, 교사의 정서적 지지, 또래애착을 환경 변인으로, 아동의 정서조절을 개인변인으로 선정하여 연구하였으나, 이 네 개의 변인들만으로는 학령기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전체를 설명하는 데 무리가 있으며, 종단연구가 아니므로 각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결론 내리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 학령기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다양한 변인을 고려하고, 종단적 측정을 통해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발달적 변화를 추정할 수 있는 잠재성장모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학령기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할 필요가 있다. 주관적 안녕감은 세월의 흐름이나 외부 환경의 현저한 변화에도 평균 수준은 상당히 안정적인 패턴을 보이며 비교적 안정적이다(Diener, 1984). 따라서 후속연구를 통해 한국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을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이를 통해 아동기에 주관적 안녕감을 형성하고, 아동기에 형성된 주관적 안녕감이 성인기, 노년기까지 지속되어 안정적인 패턴을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과 관련변인들 간의 직접효과에 관심을 두고 연구했으나, 관계구조로부터 학령기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과 관련변인들 간에 간접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과 관련된 매개변인에 초점을 두고 변인들 간의 매개효과를 검증해 보는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 강승희 (2010). 중학생의 부·모 애착, 우울, 심리적 안녕감, 학교생활적응관계. *중등교육연구*, 58(3), 1-29.
- 곽금주, 박영신, 김의철 (1998). 한국 청소년의 생활만족도와 스트레스 형성요인: 도시와 농촌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3(1), 79-101
- 곽윤정 (1997). 정서지능의 발달 경향성과 구인 타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석만 (2008). *긍정심리학: 행복의 과학적 탐구*. 서울: 학지사.
- 문수백 (2009). *구조방정식 모델링의 이해와 적용*. 서울: 학지사.
- 문용린 (1996). 한국학생들의 정서지능 측정연구. 새로운 지능의 개념: 감성지능. 서울: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 문용린 (2011). *문용린 교수의 정서지능 강의*. 서울: 북스넷.
- 문은식 (2014).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 또래애착 및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구조적 관계. *인간발달연구*, 21(2), 23-36.
- 민하영 (2012). 학령기 아동의 모애착과 우울 관계에서 또래애착이 미치는 매개효과. *한국생활과학회지*, 21(5), 915-927.
- 민하영, 이영미 (2012). 학령기 남아와 여아의 또래애착에 미치는 부/모애착과 거절예상의 영향. *인간발달연구*, 19(4), 239-154.
- 박은성 (2010). 초등학생이 교사에게 기대하는 사회적 지지 내용 분석. *초등교육학회지*, 17(2), 65-88.

- 박종일, 박찬웅, 서효정, 염유식 (2010).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연구와 국제비교. *한국사회학*, 44(2), 121-154.
- 박지원 (1985).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백화정 (1988). 친구 지각에 관한 일 연구: 아동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 (2014). 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 양선미, 박 경 (2011). 청소년의 자기에 성향이 우울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8(12), 79-100.
- 양연정 (2013). 교사의 정서지능이 아동의 정서지능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봉애, 옥정희 (2013). 사회적 지지가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교적응력, 정서조절력, 사회적응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8(4), 511-538.
- 유슬기, 방희정 (2011).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낙관성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부모 관련 스트레스 및 또래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18(1), 169-185.
- 이미경·김성희 (2011). 초등학생 부모-자녀 관계 척도개발. *상담학연구*, 12(3), 997-1017.
- 이미숙, 민하영 (2013). 초기 청소년의 또래애착에 대한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과 자아탄력성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6), 1-9.
- 이민영, 김광웅, 조유진 (2006). 아동이 지각한 부모행동통제특성과 정서지능 및 친구 간 갈등 해결전략. *아동학회지*, 27(6), 149-165.
- 이원숙 (1992). 사회적 망·사회적 지지와 임상적 개입의 이론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정미, 이양희 (2007).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간의 갈등, 어머니의 양육행동, 사회적 지지 및 안녕감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0(4), 33-58.
- 이정표 (2011). Buber 관계론을 통해 본 초등교사와 아동 관계의 의미 연구. *초등교육학연구*, 18(2), 247-265.
- 이진주, 김정민, 문대근, 이종각, 문수백 (2012).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관련변인들 간의 관계 구조분석. *인간발달연구*, 19(3), 167-188.
- 장미희, 이지연 (2011). 모애착, 거부민감성, 정서조절능력이 아동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4(1), 35-53.
- 정문경 (2013).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역량지각이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윤주 (2015). 아동의 안녕감 관련 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8(2), 73-95.
- 정혜영, 이경화 (2008).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지지, 자기조절력, 주관적 안녕의 인과적 구조분석. *아동학회지*, 29(4), 167-179.
- 최미숙 (2014). 청소년의 가족건강성, 사회적 지지, 자아탄력성, 희망, 또래관계 기술 및 문제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분석.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Ainsworth, M. D. (1989). Attachment beyond infancy. *American Psychologist*, 44(4), 709-716.
- Calkins, S. D. (1994). Original and outcomes of

- individual differences in emotion regulatio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2-3), 53-72.
- Cohen, S., & Wills, T. 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2), 310-357.
- Compton, W. C. (2007). 긍정심리학 입문. 서은국, 성민선, 김진주(역). 서울: 박학사. (원본 발간일, 2005).
- Cummins, R. A. (1996). The domains of life satisfaction: An attempt to order chaos. *Social Indicators Research*, 38(3), 303-328.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3), 542-575.
- Diener, E., Emmmons, R. A., Larsen, R. J., & Griffe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Assessment*, 4(1), 71-75.
- Diener, E. (2000). Subjective well-being: The science of happiness and proposal for national index. *American Psychologist*, 55(1), 34-43.
- Diener, E., & Seligman, M. E. P. (2002). Very happy people. *Psychological Science*, 13(1), 81-84.
- Goleman, D. (1995).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Bantam Books.
- Gullone, E., & Robinson, K. (2005).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Revised (IPPA-R) for children: A psychometric investigation. *Clinical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12(1), 67-79.
- Kline,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rd, ed.). New York: Guilford Press.
- Montemayor, R., & Eisen, M. (1977). The development of self-conceptions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13(4), 314-319.
- Myers, D. G. (1992). *The pursuit of happiness*. New York: Avon Books.
- Newland, L. A., Giger, J. T., Lawler, M. J., Carr, E. R., Dykstra, E. A., & Roh, S. (2014). Subjective well-being for children in a rural community. *Journal of Social Service Research*, 40(5), 642-661.
- Putallaz, M., & Sheppard, B. H. (1992). Conflict management and social competence. In C. U. Shantz & W. W. Hartup (Eds.), *Conflict in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pp. 330-355),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aykov, T. (2001). Estimation of congeneric scale reliability using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with nonlinear constraints. *British Journal of Mathematical and Statistical Psychology*, 54, 315-325.
- Salovey, P., & Mayer, J. D. (1990).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9(3), 185-211.
- Szalai, A. (1980). The meaning of comparative research on the quality of life. In A. Szalai & F. M. Andrews (Eds.), *The quality of life: Comparative studies* (pp. 7-21). Beverly Hills, California: SAGE.
- Veenhoven, R. (1991). Is happiness relative?. *Social Indicators Research*, 24(1), 1-34.
- Watson, D., Clark, L. A., & Tellegan, A. (198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brief measures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The PANAS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6), 1063-1070.

1 차원고접수 : 2018. 01. 09.

수정원고접수 : 2018. 02. 12.

최종게재결정 : 2018. 02. 22.

A Structural Analysis on School-Aged Children's Subjective Well-Being and its Related Variables

Choi, Ja-eun

Moon, Soo-back

Dept. of Child Studies, Daegu Catholic University

The purpose of present study were to investigat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the related variables of school-age children's subjective well-being.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669 of the 5th and the 6th grade children in the region of Daegu. Statistical methods for the data analysis were the SPSS 23.0, AMOS 23.0. And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ethod was used to model fit. Goodness of fit was evaluated using the SRMR, RMSEA and its 90% confidence interval, CFI, and TLI.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parents-children intimacy-support relationship, teacher's emotional support,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peer attachment affected directly on school-age children's subjective well-being. Second, parents-children intimacy-support relationship, teacher's emotional support,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affected directly on school-age children's peer attachment. Third, parents-children intimacy-support relationship, teacher's emotional support affected directly on school-age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emotional support of teachers, peer attachment and emotional control of children are important to enhance the subjective well-being of children.

Keywords: subjective well-being, parents-children intimacy-support relationship, teacher's emotional support, peer attachment, children's emotion regulation